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일자리 미스매치와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분석

이원호*

Place-based Policy and Urban Poverty: An Analysis of Employment Mismatch and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Wonho Lee*

요약 :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어 : 도시빈곤,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 장소성, 장소기반 정책, 광역대도시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ployment and spatial mismatch as a significant acting factor of deepening urban poverty and analyses the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that the more efficient place-based labor market intervention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e change of unemployment rate as a regional labor market outcome in metropolitan cities is determined by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isequilibrium of labor supply and demand and employment mismatch according to various labor market conditions and its process is certainly differentiated across the metropolitan regional labor markets.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during the employment suburbanization the spatial mismatch puts differentiated impacts on different labor groups through human capital requirements and industry-selective job opportunities. As a result, because this whole process works with its unique process within individual regional labor markets, in order to link between urban poverty and employment mismatch and to promote problem-solving labor market intervention, we need to develop place-based policy based on the placeness of regional labor market.

Key Words : urban poverty, employment and spatial mismatch, placeness, place-based policy, metropolitan cities

이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nholee@sungshin.ac.kr

1. 서론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지형을 급변시킨 대표적인 사건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간주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산업화 기반 성장 동력의 힘은 급속한 경제개방과 세계화의 유동성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전례 없는 국가부도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후에 추진된 구조개혁은 남미 등 여타 비슷한 경험의 나라에서 나타난 모습 그대로 긴축재정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삶의 질 저하 및 보다 구조적인 빈곤의 심화 등을 초래하였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빈곤 및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일 것이다. 실제로 2015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271천 명으로서 32.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다가 이후 경기회복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의해 다시 증가하였다가 점차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지만(김복순·정현상, 2015),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격차와 빈곤 심화의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우리나라 경제의 지식기반화에 따른 고용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라는 보다 심화된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측면에서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변동은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 및 빈곤 현상의 심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소득격차와 빈곤에 대응하는 관련 사회정책으로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한편 빈곤문제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특히 사회지리학은 소위 복지지리학의 전통 속에서 오래 전부터 빈곤문제를 다루어 왔다(Pain *et al.*, 2001).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밀접한 ‘문화적 전환’과 사회적 및 학문적 보수화 경향 등에 의해 빈곤문제 연구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진 적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한 일상생활의 파

괴 및 빈곤의 심화는 결국 사회지리학으로 하여금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지리학에서 빈곤을 다룸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장소와의 연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정책도 그러한 측면, 즉 장소기반 정책을 주장한다는 점이다(Partridge and Rickman, 2008). 이것은 빈곤문제에 있어 사람기반 정책을 주장하는 경제학적 접근과 대별되는데,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는 신고전경제학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빈곤문제와 같은 노동시장적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균등화되기 때문에 장소기반 정책보다는 노동자 훈련을 지원하고 가구의 이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람기반 정책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 간 소득격차 및 빈곤의 차이가 광범위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해외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Betti *et al.*, 2012; Jordan, 2008; Lobao *et al.*, 2008).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수급 불일치의 지역 간 차이(이정섭, 2011), 도시와 농촌 간 빈곤지역 형성의 차이(이영아, 2015),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도시 내 주거지 분화(정수열, 2015) 등 빈곤과 노동시장 결과의 공간적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 및 소득격차에 대한 대응으로서 장소기반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특히 빈곤문제의 해결에 있어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결과에 대한 개입도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고려한 장소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빈곤의 공간적 구성을 이해하고 장소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별 노동시장 결과의 특징 및 그 차이 형성과정을 고찰하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장소성의 효과적인 규명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지역 간 비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7대 광역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동의 거시적 트렌드인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의 지식기반화, 저성장 기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노동시장 변동의 주요 분기점이 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중시하여 그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빈곤과 장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우선 정리하고, 그동안 진행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및 그 차이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7대 광역시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실태 및 그 요인의 장소성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에서 공간적 미스매치, 즉 직주근접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 패턴의 차이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분석결과 요약과 함께 본 논문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2. 빈곤과 장소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 연구동향

1) 빈곤과 장소의 상호작용

전술한 바와 같이 빈곤문제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빈곤과 장소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Jordan, 200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간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였다. 우선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빈곤을 이해하려는 접근은 물리적 기반시설, 즉 건조환경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빈곤현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슬럼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강화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리학 내 뿌리깊은 환경결정론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20세기 초 도시 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학적 접근으로서 교외화를 도모했던 경험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Gough *et al.*, 2006). 도시 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한 새롭고 위생적이며 적절한 기능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도시슬럼을 대체하면서 건전한 시민의 육성과 빈곤 극복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존재하였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는 시

민에게 적절한 주택의 공급에 실패한다는 점과 이를 대신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당시 팽창하는 사회주의체제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충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사회공학적 시도였음이 분명하다(Pain *et al.*, 2001). 빈곤 구축에 있어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은 최근 이영아(2015)의 연구에서도 두드러진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빈곤층 밀집지역의 형성과정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따른 공간적 배제가 사회적 배제로 연결되면서 특징적인 배제의 공간이 형성되고 또한 빈곤의 영속화가 강화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였다.

둘째, 공간적 접근은 특정 빈곤지역에서 인구의 유출입과 유출입 집단별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이동성이라는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초기 연구에서 이동성의 문제는 오래된 슬럼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이후 빈곤의 원인으로서 문화가 강조되던 시기에는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도시슬럼에서 개인적으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몰락에 따라 국가의 반빈곤 정책이 점차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게 되면서 이동성과 선택 문제는 정책에 의해 촉진되어야 하는 사회관계로 간주되었다.

끝으로 빈곤과 장소의 상호작용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빈곤지역 내 문화라는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함께 국가의 기존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1970년대 이후 빈곤의 원인으로서 빈곤지역 내 고유한 문화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문화는 “공유된 가치와 집단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지역 내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Jordan, 2008, 115), 빈곤지역 내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가 지역 내 빈곤을 영속화시키면서 주민의 탈출을 막는다고 이해되었다. 빈곤문화에 초점을 두는 접근은 빈곤을 야기하는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및 실천적 효과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서구에서 반빈곤 정책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 두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며,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권 내

에서 반빈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빈곤 정책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정책의 파편화 및 고립화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국가의 역할 축소와 개인 및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신자유주의적 독트린의 공간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Gough *et al.*, 2006).

빈곤과 장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공간적 접근은 빈곤의 원인을 장소의 속성에서 찾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공동체 부활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웰빙 관련 논의에서도 여전히 빈곤을 이해함에 있어 장소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Jordan, 2008).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간(장소)을 통해 빈곤을 인식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 등의 공간적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많은 정책들이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한, 빈곤문제에 대한 공간적 접근의 유용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일자리 미스매치와 빈곤 이해

오늘날 일자리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및 정치적 화두 중 하나이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단순히 일자리 공급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최창곤, 2013; 최창곤·이선경, 2010). 이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수급 불균형(disequilibrium)과 질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조건에 있어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토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공급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최창곤, 2013). 최창곤·이선경(2010)은 우리나라에서 학력 및 연령별 미스매치가 다른 측면에서의 미스매치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과 다른 국가와 달리 지역별 미스매치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스매치는 “개념상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지만 서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최창곤, 2013, 94). 또한 미스매치는 지역, 산업, 학력, 임금, 직무 등의 측면에서 구직과 구인 간의 조건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특히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과 직업이 요구하는 직무 기준 간의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직무 미스매치가 대표적이다(이정섭, 2011). 최근 최창곤(2013)은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변동을 조사하였는데, 학력별 미스매치를 제외하고 직종별, 지역별, 연령별 및 임금별 미스매치가 모두 증가해 왔다고 분석하였다. 이정섭(2011)은 우리나라 시도 단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과 불일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이것이 지역 간 인구이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증가를 통한 수급 불균형 완화는 노동력 유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일자리의 낮은 수급 미스매치는 노동력 이동의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가 취업 가능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빈곤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 내 특정 집단의 빈곤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이론이 바로 공간적 미스매치 이론이다. 공간적 미스매치는 실업 및 빈곤을 도시구조와 연결시키는 이론이며, 도시 내 가난한 지역 내 주민이 일자리가 존재하는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됨에 따라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이 이론은 1960년대 미국 중심도시 내 극단적으로 격리되었던 흑인지역 내 빈곤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당시 진행되었던 주거 및 고용의 교외화와 주택시장 차별에 따른 흑인들의 계토 형성 등이 미스매치 형성요인으로 분석되었다(Kain, 1968). 따라서 흑인들에게 있어 직주 불일치는 그들의 높은 실업, 낮은 임금 및 빈곤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해 흑인들이 빈곤에 처해지는 과정은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관련된 통근비용 요인으로 인해 흑인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직주 불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 부족에 따라 일자리 검색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 일자리 검색비

용이 높아진다는 점도 사실이다. 아울러 직주 불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일자리 검색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가 줄어들한다는 점과 오랜 통근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되어 왔다 (Gobillon and Selod, 2013). 공간적 미스매치 이론은 도시 내 특정 취약집단의 빈곤이 도시공간구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실제 검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 (Ihlanfeldt, 2006). 따라서 공간적 미스매치에 대한 검증과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자료가 분석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볼 때 빈곤 정책으로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장소적 접근의 중요성도 분명함을 알 수 있다.

3.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현황 및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우리나라 도시빈곤의 실태를 개관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근로자 기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고찰하였다(그림 1).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절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08년 4.6에서 2014년 4.2로 줄어들었고, 가처분 소득 기준

으로도 같은 기간 동안에 3.4에서 2.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출부문에서 소비지출과 가계지출 기준 모두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서 2008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소득부문과 달리 지출부문에서 절대적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도 절대적 빈곤율과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인다. 2008~2014년 기간 동안에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에 반해 지출부문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상승에서 벗어나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서 2008년 수준을 넘는 빈곤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지출부문의 빈곤율 심화와 함께 소득배분에서도 빈곤율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 모든 소득부문 기준에서 소득격차는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출부문에서의 소득격차는 빈곤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줄어들었으며, 2011년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빈곤율과 소득격차의 변화패턴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빈곤의 주요 측면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하성(2015)은 우리나라의 빈곤과 소득격차의 설명에서 기존의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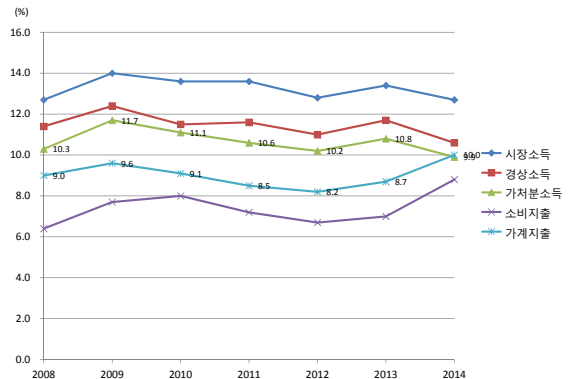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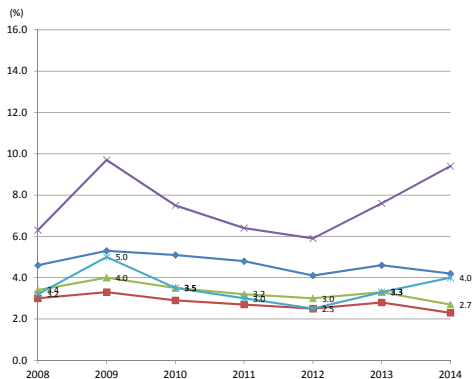


그림 1. 도시근로자 빈곤 실태: 절대적 빈곤율(좌)과 상대적 빈곤율(우)

출처: 정은희·이주미(201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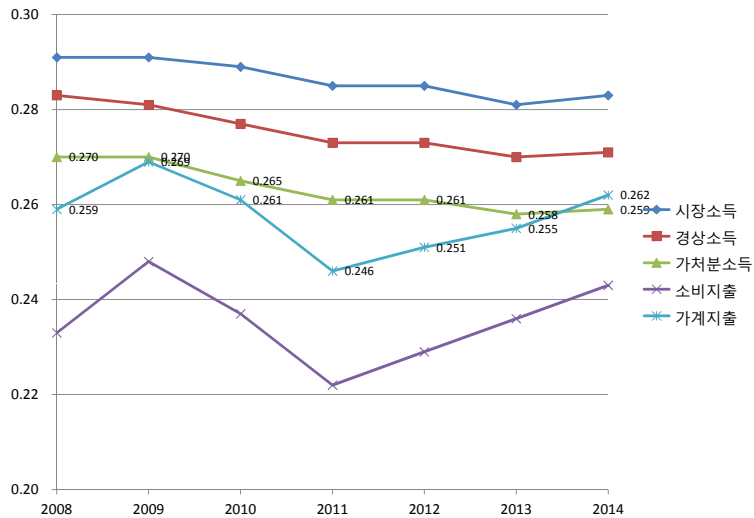


그림 2.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 변동: 지니계수

출처: 정은희·이주미(2015)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은 논의들이 자산기반의 격차에 초점을 둔 것을 비판하면서 빈곤과 소득격차의 근본 원인으로서는 근로소득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빈곤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의 원천적인 배분을 위한 근로소득의 격차 해소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서 비정규직 해소 등 노동시장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빈곤과 소득격차에 있어 지출부문의 변화패턴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특히 2014년에 처음으로 가계지출 기준 소득격차의 정도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격차의 정도를 추월했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의 정책이 소득측면과 함께 지출측면에서의 빈곤과 격차 해소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지출부문에서의 빈곤 심화 및 소득격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기준 빈곤율과 소득격차의 정도는 여전히 지출부문보다 소득부문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하성(2015)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결과가 빈곤과 소득격차의 패턴을 결정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실상 일자리 그 자체가 사람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지역노동시장의 패턴과 동태를 검토하는 것이 도시빈곤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7대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우선 이정섭(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 불균형 및 미스매치 실태를 고찰한다.

먼저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정도를 볼 수 있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화를 고찰한다(그림 3). 일반적으로 지역노동시장이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면 수급 불균형이 낮은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면, 먼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지나면서 낮아지던 실업률은 2013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용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과 울산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반면, 부산과 대구는 반대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 비교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여타 인천, 서울 및 광주는 모두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상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노동시장 수급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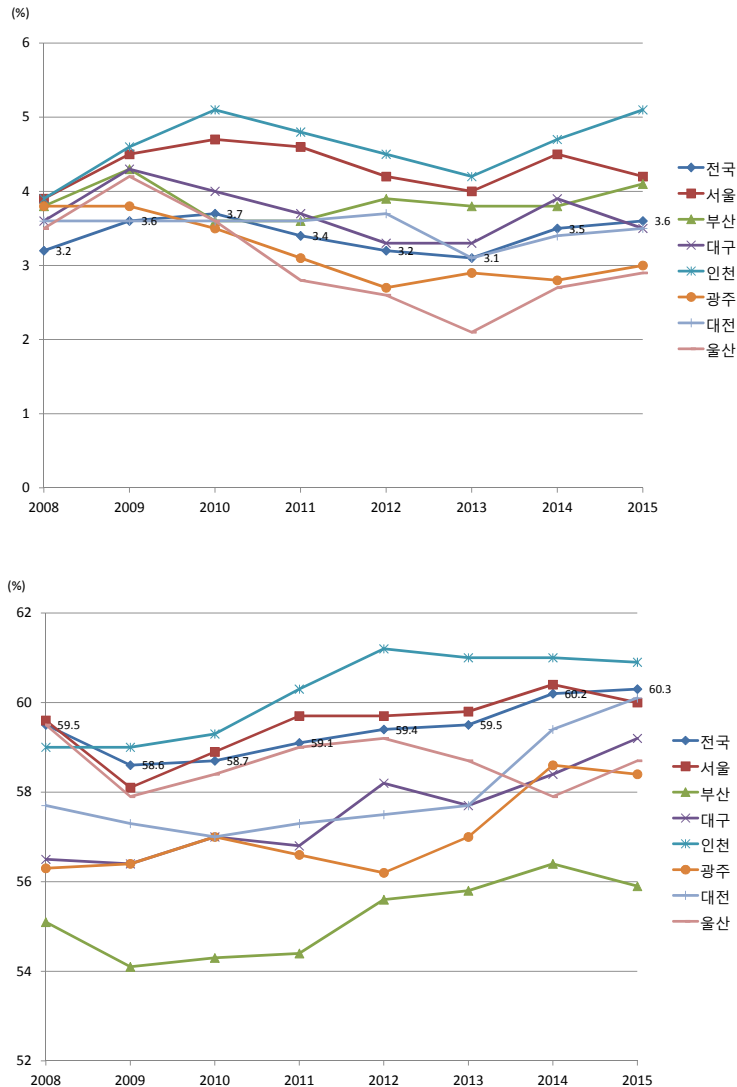


그림 3. 광역대도시별 실업률(상)과 고용률(하) 변동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시장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력 수요 측면에서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도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표 1). 전국적으로 2008년~2015년 기간 동안에 약 205만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1.2%의 성장률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수준에 비추어 인천, 광주 및 대전 등의 취업자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 울

산, 부산, 대구 순으로 취업자의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각 지역노동시장별 노동력 공급 실태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고찰하였다(표 2). 같은 기간 동안에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57만 명이 증가하면서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광역대도시별로는 취업자의 증가패턴과 마찬가지로 인천

표 1. 광역대도시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08~15년 변동	
									증가분	연평균증가율
전국	23,847	23,856	24,054	24,125	24,402	25,545	25,951	25,900	2,053	1.19
서울	4,908	4,840	4,960	4,971	5,027	5,156	5,162	5,102	194	0.56
부산	1,569	1,560	1,557	1,594	1,637	1,638	1,682	1,656	87	0.77
대구	1,139	1,185	1,166	1,187	1,204	1,200	1,218	1,226	87	1.06
인천	1,285	1,312	1,324	1,392	1,416	1,472	1,473	1,484	199	2.08
광주	637	661	668	674	693	721	736	731	94	1.99
대전	706	694	707	704	729	749	786	775	69	1.34
울산	533	529	536	544	537	546	541	558	25	0.6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2.52%, 광주 2.03%, 대전 1.57% 순으로 전국에 비해 빠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패턴이 보인다. 이에 반해 부산 0.58%, 서울 0.66%, 울산 0.84%, 대구 1.10% 등의 순으로 전국보다도 낮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패턴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6%인데, 인천(64.2%), 서울(62.6%) 등을 제외하고 여타 모든 대도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며, 특히 부산은 58.3%로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상 7대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 및 공급 측면을 고찰한 결과,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낮은 저성장 국면의 노동시장 속에서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 즉 수급 미스매치를 그 한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인천의 높은 실업률도 수급 미스매치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울산, 대전, 광주 등의 낮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갖는 특징 속에서 낮은 미스매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지역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즉 수급 미스매치 정도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실태와 변동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정도를 대표하는 지

수는 구인배수(구인/구직)로서 기업의 신규 구인자수를 신규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이때 지수 값이 1보다 작을수록 개인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더 심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수급 미스매치를 고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월별 리포트를 종합하여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우선 2008년 이후 구인배수는 국제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림 4). 광역대도시별로는 울산의 구인배수가 탁월하게 높게 나타나며, 서울, 부산, 대전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실 2014년 기준 울산을 제외하고 광역대도시의 구인배수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경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총괄적인 구인배수의 변화와 함께 워크넷 자료는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특성과 고용형태 및 임금 수준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구인인원, 구직자 수, 취업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비교가 가능한 구직조건을 토대로 구인배수 고찰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의 패턴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고용형태별 구인배수를 보면, 일용직, 계약직, 상용직 순으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용직과 계약직의 경우 구인인원 초과 현상이, 상용직의 경우 구직자 수 초과 현상이 나타났다(표 3). 자료의 특성 상

표 2. 광역대도시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단위: 천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8	인구수	24,347	5,122	1,659	1,185	1,317	663	722	545
	참가율	61.5	62.0	57.3	58.6	61.4	58.5	59.8	61.7
2009	인구수	24,394	5,064	1,639	1,200	1,355	673	724	544
	참가율	60.8	60.8	56.6	59.0	61.8	58.6	59.4	60.5
2010	인구수	24,748	5,180	1,633	1,218	1,390	688	728	553
	참가율	61.0	61.8	56.3	59.4	62.5	59.0	59.1	60.5
2011	인구수	25,099	5,252	1,633	1,214	1,429	692	739	559
	참가율	61.1	62.5	56.4	59.0	63.3	58.4	59.4	60.7
2012	인구수	25,501	5,258	1,693	1,245	1,480	704	753	561
	참가율	61.3	62.3	57.9	60.2	64.2	57.8	59.7	60.8
2013	인구수	25,873	5,307	1,710	1,237	1,505	729	759	558
	참가율	61.5	62.3	58.0	59.6	63.7	58.7	59.5	60.0
2014	인구수	26,536	5,386	1,733	1,264	1,541	758	792	561
	참가율	62.4	63.2	58.6	60.7	64.0	60.4	61.5	59.5
2015	인구수	26,913	5,362	1,728	1,279	1,568	763	805	578
	참가율	62.6	62.6	58.3	61.3	64.2	60.1	62.2	60.4
인구수 증가분		2,566	240	69	94	251	100	83	33
연평균 증가율		1.44	0.66	0.58	1.10	2.52	2.03	1.57	0.8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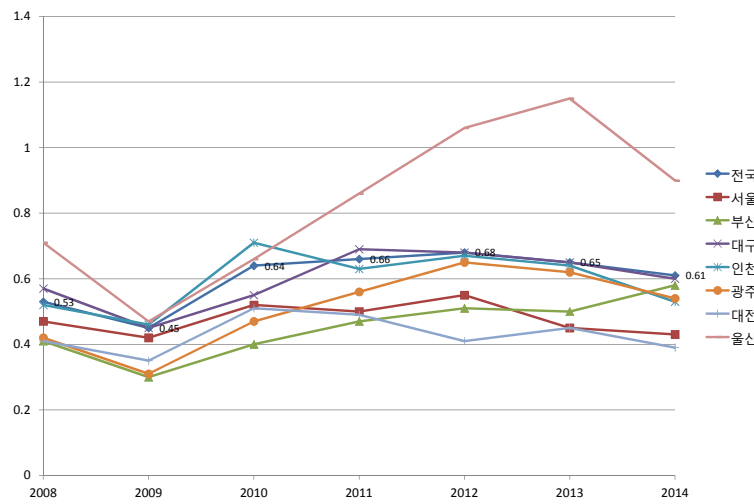


그림 4.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구인배수 변화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상용직의 구인배수가 과소평가된 점을 고려할 때¹⁾, 상용직 일자리를 위한 경쟁 수준은 계약직의 3배, 일용직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임금수준에 따른 구인배수의 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임금 50만원 미만의 일자리는 구인인원이 구직자 수에 비해 2.6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구인배수가 낮아져서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는 패턴을 보인다. 전체 임금대에서 서울은 가장 일자리 경쟁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는 반면, 울산은 반대로 비교적 높은 임금대에서 일자리 수급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고임금대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구인배수와 달리 학력과 고용형태 측면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인 0.44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과 부산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취업자 비율을 보인다(표 4).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는 고학력

실업현상의 등장을 시사하는 분석결과로 생각된다. 고용형태 측면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상용직에서의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0.38인 반면 계약직과 일용직은 각각 0.66, 3.39 등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과 대구의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의 값이 낮아서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계약직의 경우에는 부산, 대구, 인천의 취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수급 미스매치 정도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워크넷 자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주요 직업별 구인배수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5). 전국적으로 보면, 관리, 금융·보험, 정보통신,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음식서비스 관련 직종에서 구인배수가 낮게 나타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수급 미스매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화학, 식품가공, 기계, 섬유 및 의복, 영업 및 판매 등 제조업 위주의 직종에서 구인배수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의 경우,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대전에서 구인배수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울산, 인천 등은 산업도시적 특성이 반영되어 제조

표 3. 2014년 광역대도시의 고용특성별 구인배수(구인/구직)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59	0.38	0.60	0.54	0.56	0.55	0.45	0.86
고용 형태 별	상용직	0.64	0.36	0.67	0.61	0.63	0.60	0.39	0.99
	상용직(시간제)	0.73	0.61	1.00	0.74	0.96	0.46	0.53	0.65
	계약직	1.92	1.59	1.85	1.38	1.69	1.45	3.18	1.48
	계약직(시간제)	1.00	0.82	1.14	0.85	0.83	0.88	0.81	0.71
	일용직	2.66	1.84	2.37	3.68	0.77	17.62	9.90	16.35
	무관	-	-	-	-	-	-	-	-
임금 대별	50만원 미만	2.67	0.35	1.68	10.82	0.61	5.12	19.78	0.12
	50~100만원 미만	0.67	0.64	0.86	0.63	1.38	0.76	0.63	0.54
	100~150만원 미만	0.74	0.53	0.64	0.55	0.65	0.54	0.55	0.90
	150~200만원 미만	0.63	0.50	0.67	0.54	0.59	0.60	0.37	0.97
	200~250만원 미만	0.51	0.32	0.54	0.57	0.48	0.62	0.30	0.95
	250만원이상	0.33	0.13	0.40	0.40	0.33	0.35	0.34	0.6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www.keis.kr)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함.

표 4. 2014년 광역대도시의 특성별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44	0.39	0.49	0.37	0.44	0.42	0.41	0.51
학력 별	초졸이하	0.53	0.37	0.45	0.48	0.55	0.54	0.66	0.43
	중졸	0.46	0.40	0.50	0.40	0.45	0.39	0.43	0.46
	고졸	0.40	0.34	0.46	0.33	0.43	0.36	0.37	0.45
	전문대졸	0.39	0.36	0.48	0.34	0.45	0.38	0.36	0.44
	대졸	0.36	0.34	0.43	0.32	0.42	0.37	0.35	0.42
	대학원졸이상	0.35	0.33	0.42	0.30	0.40	0.40	0.35	0.40
고용 형태 별	상용직	0.38	0.33	0.43	0.31	0.43	0.37	0.39	0.41
	상용직(시간제)	0.40	0.31	0.51	0.33	0.57	0.33	0.35	0.37
	계약직	0.66	0.41	0.66	0.69	0.82	0.44	0.39	0.49
	계약직(시간제)	0.56	0.44	0.57	0.68	0.51	0.97	0.46	0.22
	일용직	3.39	2.73	3.19	3.58	0.20	16.89	9.88	16.26
	무관	0.32	0.30	0.39	0.26	0.38	0.30	0.38	0.3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www.keis.kr)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함.

표 5. 2014년 광역대도시의 주요 직업별 구인배수

직업 중분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59	0.38	0.60	0.54	0.56	0.55	0.45	0.86
관리직	0.10	0.05	0.10	0.10	0.14	0.10	0.06	0.27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39	0.33	0.44	0.41	0.34	0.49	0.37	0.35
금융·보험 관련직	0.20	0.21	0.24	0.27	0.17	0.18	0.11	0.25
보건·의료 관련직	0.59	0.60	0.63	0.64	0.79	0.27	0.26	0.55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30	0.20	0.38	0.40	0.28	0.43	0.24	0.5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73	0.46	0.50	0.71	0.78	0.48	0.77	0.79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86	0.69	1.02	0.84	0.79	0.81	0.95	0.83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69	0.66	0.72	0.30	0.52	0.90	1.01	0.94
음식서비스 관련직	0.49	0.50	0.45	0.33	0.48	0.25	0.42	0.42
건설 관련직	0.65	0.72	0.87	0.51	0.60	0.87	0.45	1.72
기계 관련직	1.15	0.37	1.07	1.11	1.01	0.99	0.42	1.13
화학 관련직	2.64	0.38	1.72	2.01	2.58	2.11	0.55	1.12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86	0.23	0.83	0.51	0.39	0.68	0.32	1.09
전기·전자 관련직	0.61	0.42	0.59	0.55	0.61	0.55	0.46	1.70
정보통신 관련직	0.23	0.22	0.27	0.38	0.18	0.60	0.30	0.60
식품가공 관련직	1.27	0.24	1.11	0.65	0.91	0.82	0.55	0.4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www.keis.kr)의 자료를 토대로 계산함.

업 관련 직종의 구인배수가 모두 1 이상이라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취업기회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과 대전에서는 제조업 관련 취업기회는 낮게 나타나 결국 직업별 구인배수의 분포는 지역별 특징적인 산업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면, 최근 정체된 노동시장 여건 속에서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작용한 것을 여겨지는 반면, 서울의 높은 실업률은 학력, 고용형태, 직업 등 제 특성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열악한 일자리 미스매치 수준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인천, 대구, 부산의 높은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일자리 미스매치와 더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전과 광주에 낮은 실업률은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 미스매치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시장 내 활발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간 상호작용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명한 점은 각각의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은 서로 다른 노동시장 역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시장의 결과에 대한 이해 또는 도시빈곤 등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은 이러한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공간적 미스매치와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한 바대로 서구적 맥락에서 공간적 미스매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이 교외지역에

존재하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도시 내에서 빈곤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공간적 미스매치와 그에 따른 직주분리가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어떠한 노동시장적 결과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인 수준의 미시적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에서 매년 제공되는 자료 중 7대 광역대도시 취업자에 해당하는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공되는 자료의 제약 상 개인의 주거지가 직장동일한 대도시 내 있는 경우를 직주 일치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직주 불일치로 규정하였다.²⁾

전체 응답한 취업자 3,352명 중 약 86%는 직주일치에 해당하는 반면 14%는 다니는 직장의 위치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다(표 6).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대도시권 형성에 따른 통근권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역별 직주 불일치의 정도를 보면 인천, 대전, 대구, 서울, 광주, 부산, 울산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직주 불일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14.3%를 기준으로 볼 때, 우선 취업형태 측면에서 직주 불일치는 자영업과 가사노동에 비해 임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표 7). 또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대표하는 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직주 불일치는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대도시 내에 거주하면서 교외지역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임노동에 더 종사하고, 정규직과 상용직의 비중이 더 높아서 보다 나은 근로조건

표 6. 광역대도시별 직주 일치와 직주 불일치 분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합계
직주 일치	1,111 86.3%	530 90.1%	303 85.6%	166 81.0%	373 75.5%	154 89.0%	237 94.8%	2,874 85.7%
직주 불일치	177 13.7%	58 9.9%	51 14.4%	39 19.0%	121 24.5%	19 11.0%	13 5.2%	478 14.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의 한국노동패널 제17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표 7. 직주 일치 및 직주 불일치 집단의 특성 비교

구분	취업형태			정규직 여부		종사상 지위				
	임노동	자영업	가사노동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직주 일치	2,098 83.8%	667 91.2%	109 92.4%	1,280 81.0%	816 88.8%	1,507 82.2%	365 89.0%	226 87.3%	667 91.2%	109 92.4%
직주 불일치	405 16.2%	64 8.8%	9 7.6%	301 19.0%	103 11.2%	327 17.8%	45 11.0%	33 12.7%	64 8.8%	9 7.6%
구분	직업 분포									
	관리직	전문가 관련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 어업	기능원	장치 기계	단순 노무	
직주 일치	40 74.1%	612 83.4%	420 80.9%	315 92.1%	393 89.3%	40 85.1%	339 83.1%	329 85.9%	373 91.0%	
직주 불일치	14 25.9%	122 16.6%	99 19.1%	27 7.9%	47 10.7%	7 14.9%	69 16.9%	54 14.1%	37 9.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의 한국노동패널 제17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을 향유하는 집단으로 이해된다. 특히 직업구성에서 보면, 직주 불일치는 관리직, 사무직 및 전문가 관련 직에서 탁월하게 대표될 뿐만 아니라 기능원 관련 종사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주 불일치 집단은 상위의 근로집단과 함께 교외지역 산업단지 종사자로 대별되는 구성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주 불일치 취업자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소득 측면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표 8).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직주 불일치 취업자의 임금은 290.9만 원으로 직주 일치 취업자 224.9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측면에서도 직주 불일치 취업자의 소득 382.1만 원은 직주 일치 취업자의 소득 약 300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직주 일치 및 불일치 취업자 간 특성 차이는 광역대도시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직주 불일치 취업자가 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대전과 인천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울산과 부산은 각각 7.5%, 11.7%에 불과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임금 소득 측면에서도 대구, 울산, 광주의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소득 측면

에서는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 직주 불일치 취업자의 소득이 높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근무하는 직주 일치 취업자 일반이 대도시 밖에서 근무하는 직주 불일치 취업자에 비해 근로조건 측면에서 열등하다는 점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간적 미스매치 현상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 수준에서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장에서는 통근권 확대를 초래하는 고용 교외화가 무차별적이지 않고 오히려 산업 차별적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교외지역 취업 기회가 서로 다른 집단에게 차별적인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차별성은 광역대도시별로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노동시장의 결과 이해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 논의는 개별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8. 광역대도시별 직주 일치 및 직주 불일치 취업자 간 특성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정규직 여부		임금 및 소득 수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비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서울	직주 일치	81.1	88.5	233.5	294.2
	직주 불일치	18.9	11.5	270.5	399.8
부산	직주 일치	88.3	90.6	204.6	302.5
	직주 불일치	11.7	9.4	244.9	400.0
대구	직주 일치	81.1	88.8	209.5	256.5
	직주 불일치	18.9	11.2	374.7	297.9
대전	직주 일치	70.8	86.7	202.1	278.6
	직주 불일치	29.2	13.3	316.1	211.3
인천	직주 일치	67.4	80.6	209.3	287.8
	직주 불일치	32.6	19.4	285.0	395.0
광주	직주 일치	87.2	96.0	221.0	271.3
	직주 불일치	12.8	4.0	346.8	550.0
울산	직주 일치	92.5	98.0	286.1	461.2
	직주 불일치	7.5	2.0	357.9	-
합계	직주 일치	81.0	88.8	224.9	299.8
	직주 불일치	19.0	11.2	290.9	382.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의 한국노동패널 제17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5. 결론

본 논문은 최근 심화되는 도시빈곤 현상에 주목하면서 그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 측면에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근로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

한편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일자리 불균등 및 미스매치, 지역노동시장의 장소성 등을 연계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거시적 분석과 개인 수준의 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분석을 병행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장소성이 갖는 제 측면들에 대한 분석과 종합, 일자리 미스매치와 공간적 미스매치가 지역과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 메커니즘에서 핵심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수준 이상으로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를 위한 시론적 분석으로서 명명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밝히면서, 향후에 보다 활발한 관련 연구를 기대한다.

주

- 1) 사실 학력의 경우 구인 측면에서는 학력 무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지만, 구직의 경우 개인별 학력 수준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구인배수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스매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경우, 구인 측면에서는 명확히 채용하는 고용형태를 명시하는 반면, 구직자들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가 쉽지 않다. 다만 구직자들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전체 구직자 중 약 25% 정도이며, 사실상 고용형태 무관이라고 응답하더라도 구직자 대부분이 상용직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인배수를 해석함에 있어 상용직의 구인배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고 본다.
- 2) 본 논문의 대상을 7대 광역대도시로 국한했기 때문에, 직주 불일치의 경우는 주거지가 대도시이고 직장이 대도시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사실상 주거지 교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복순·정현상, 2015, 2015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4,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 동녘.

이영아, 2015, “한국의 빈곤층 밀집지역 분포 및 형성과정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45-56.

이영아·정윤희, 2012, “빈곤지역 유형별 빈곤층 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61-74.

이정섭, 2011,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불일치의 지역 간 차이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5(3), 439-453.

이정섭·은석인, 2013,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일자리 창출과 직주 불일치에 관한 연구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48(2), 239-258.

장하성, 2015, 왜 분노해야 하는가, 헤이북스.

정수열, 2015,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도시 내 계층별 거주지 분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1-16.

정은희·이주미, 2015, 2015년 빈곤통계 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창곤, 2013,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경제연구, 31(4), 91-116.

최창곤·이선경, 2010,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구조와 일자리,” 경제연구, 28(3), 73-95.

Betti, G., Gagliardi, F., Lemmi, A. and Verma, V., 2012, Subnational indicators of poverty and deprivation in Europe: methodology and application,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5, 129-147.

Gobillon, L. and Selod, H., 2014, Spatial mismatch, poverty and vulnerable populations, in M.M. Fisher and P. Nijkamp (eds.), *Handbook of Regional Science*, Springer, 93-107.

Gough, J., Eisenschitz, A. and McCulloch, A., 2006, *Space of Social Exclusion*, Routledge, London.

Jordan, B., 2008, The place of ‘place’ in theories of poverty: mobility,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 115-129.

Kain, J.,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 175-197.

Labao, L.M., Hooks, G. and Tickamyer, 2008,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space: sociological reflections on the missing-middle subnational scale,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 89-113.

Lhlanfeldt, K.R., 2006, A primer on spatial mismatch within urban labor markets, in Arnott, R.J. and McMillen, D.P. (eds.), *A Companion to Urban Economics*, Blackwell, Oxford, 404-417.

Pain, R., Barke, M., Fuller, D., Gough, J., MacFarlane, R. and Mowl, G., 2001, *Introducing Social Geographies*, Arnold, London.

Partridge, M.D. and Rickman, D.S., 2008, Place-based policy and rural policy: insights from the urban spatial mismatch literature,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 131-156.

이원호

교신: 이원호, 02844,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 다길 2, 성
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wonholee@sungshin.
ac.kr)

Correspondence: Wonho Lee,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34 Da-gil 2 Bomun-ro,
Seongbuk-gu, Seoul, 02844, Korea (e-mail: wonholee@
sungshin.ac.kr)

최초투고일 2016. 2. 1

수정일 2016. 2. 17

최종접수일 2016. 2. 26